

주민 괴롭히는 北 소음폭격에 인천시, 강화도에 방음창 설치

확성기 방송에 강화주민 피해 극심 35세대에 3.5억 투입, 방음창 설치 주민 심리상담 등 피해지원 계획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 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주민들을 위해 방음창 설치를 결정하고, 주민 보호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최근 소음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을 위해 방음창 설치를 결정하고, 주민 보호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해면 당산리는 북한 방송 소음이 24시간 이어지는 강화군 내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청지역으로, 생활과 수면에 중대한 피해를 겪는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 같은 주민 고통을 덜고자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방음창 설치를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원은 소음피해가 심각한 당산리 35세대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예비비 예산 약 3억 5천만 원이 긴급 투입된다. 방음창 설치에는 11월 중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5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인천시

산 교부 후 연내에 발주될 예정이다. 그간 인천시는 정부에 주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법 개정 및 국비 지원 등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는 소음피해 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12월 중 전문기관을 통한 소음측정 용역을 발주해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

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가족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마을회관 소음방지시설 리모델링과 농로 안전 개선 사업 등의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15일 강화 소음피해 현장(송해면 당산리)을 재차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면담하고, 북한 대남 소음방송 청취 등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서울고교생, 해외 학생들과 환경문제 논의

글로벌 공동 과학탐구 최종발표회 3개국 고교생과 주제별 공동연구

서울 14개교와 해외 4곳 국제학교 고교생 총 107명이 함께 연구한 '과학 탐구' 수행 결과가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생들이 참여해 진행한 '2024 글로벌 공동 과학 탐구 프로그램'의 최종 발표회를 18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 글로벌 공동 과학 탐구 프로그램'은 국내의 학생들이 지리적 제약 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탐구 결과를 공유하며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기획한 학생 과학탐구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국내 7개 고교, 국제학교 2곳 등 총 16팀으로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2년차인 올해 경기여고, 광영여고, 동덕여고, 명덕고, 목동고, 반포고, 상계고, 선정고, 오산고, 인창고, 인현고, 장훈고, 창덕여고, 혜원여고 등 일반고

14곳과 싱가포르, 자카르타,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등 3개국 4개 한국국제학교 고등학생 1·2학년 총 107명(38팀)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발표회는 서울 등 5개 도시의 과학실험실과 해외 연구실을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연결해 진행된다. 18일에는 '우리 지역을 지나는 양재천의 특성에 맞는 생태 친화적 개선 방안' 등 9가지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에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되며, 세션1에서는 '종량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7가지 연구가, 세션2에서는 '환경-행동 경제학으로 해결하는 미세먼지 문제' 등 7가지 연구가 발표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세션1에서는 '싱가포르 강의 화학적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강의 수질 오염의 생태친화적 해결방안' 등 6가지 연구가, 세션2에서는 '부킷 타마 지역 자연 환경에 따른 식물 생태지도 변화 조사' 등 8가지 연구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

서울시교육청과 정비사업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앞장

서울시가 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3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심의 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

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개별 사업의 이유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간혹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무협의체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환경 주요 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타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8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거주 외국인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거래 심층상담 중국어, 베트남어 등 7개 국어 통역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 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8일부터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뤄진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한다. 영어 외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등 총 7개 국어를 각 상담사가 상주하며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2229-4900), 이메일(help@sfrc.seoul.kr)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외국인포털(global.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 및 외국인

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 등 총 293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2008년 도입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지난 2014년에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

덕성여대, 도봉구 일자리박람회서 취업상담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대학일자리본부는 최근 도봉구청 광장에서 진행된 2024년 도봉구 일자리 박람회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덕성여대는 이번 도봉구 일자리 박람회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전문 컨설턴트 및 지자체와 협력해 박

람회 현장에서 청년들의 진로 및 취업 관련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번 박람회와 이동상담 프로그램이 지역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청년들의 취업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5 | 해질 / 17:19

11월 18일 (월)
음력 : 10월 18일

수도권 날씨
-2 ~ 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6, 동두천 -4/7, 가평 -4/7, 파주 -5/6, 서울 -2/6, 양평 -3/8, 인천 0/6, 수원 -1/6, 용인 -1/6, 평택 -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中, 北 막아야” 시진핑 “한반도 충돌 불허”
▲APEC 폐막…트럼프 보호무역 우려 속 다자주의 지지 확인 /사진 뉴시스

▲트럼프 북귀에 골드래리 끝?... 금값 3년 만에 최대 하락
▲日 외무상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북러 군사협력 우려 전달”



▲러, 우크라이나 서부 폭격... ‘나토 동맹’ 폴란드, 전투기 대응 출격
▲“EU, 러시아 중국내서 공격용 드론 생산 증거 확보” /사진 뉴시스